



[산업]
삼성 '갤럭시노트9'
침체된 번호이동 시장
구원투수 될까
04



Life

[부동산]
재개발 속도내는
노량진뉴타운
'동작구의 심장' 부상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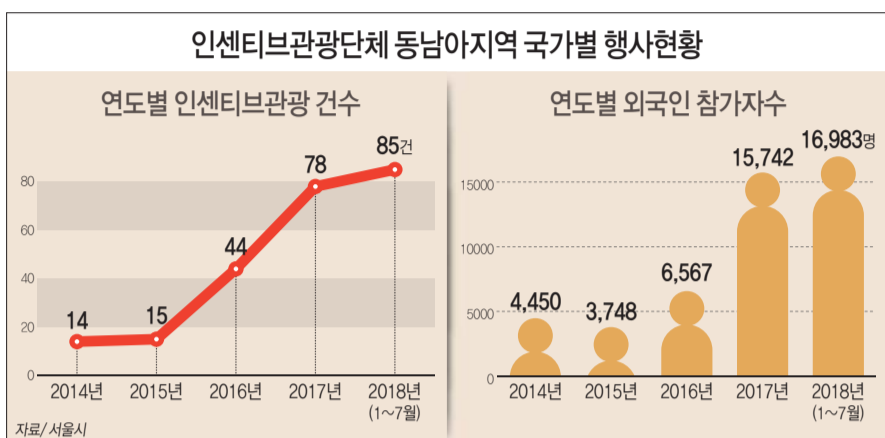


“서울이 좋아서 또 왔어요” 印尼기업 최대규모 재방문

작년 포상휴가로 서울 찾은 'MCI' 약 두배 규모인 2000여명 방한 동남아 인센티브관광 최대 규모

서울에 단체포상휴가를 즐겼던 인도네시아 기업 'MCI(Millionaire Club Indonesia) 그룹'이 오는 다시 서울을 찾는다. 지난해 1100명의 약 두 배 규모인 2000여 명이 방문한다. 동남아 단일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인센티브관광단체 중 첫 재방문 기업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인니 기업 MCI가 오는 9월 서울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MCI그룹은 인도네시아 지역 화장품 제조·유통 및 금융상품 판매 기업이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본사를 비롯해 자카르타 사무소, 대만 타이베이에 지사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여행이 만족스러웠다는 MCI그룹 임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기업이 올해도 서울로 다시 포상관광을 오게 됐다”고 재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올 상반기 서울을 방문한 동남아 지역 인센티브(기업관광) 관광객 수는 1만 7000명(지난해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적(1만5742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 2014년 14건 4450명에 불과했던 동남

아 인센티브 관광객이 작년 78건 1만574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월엔 말레이시아 사하지다 하이오그룹 1200명, 인도네시아 터퍼웨이 그룹 1500명이 방문하는 등 동남아 지역 대규모 단체관광객의 서울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국 금한령 이후 침체됐던 인센티브관광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격적인 공동 마케팅을 펼친 결과”라며 “동남아 현지 관광설명회, 방송광고 등 관광객 방문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기업 임직원들은 9월 10일부터 10월3일까지 약 한달 동안 2000여 명이 10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임직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에 관심이 높은 만큼 ‘K-Style Hub’를 방문, 한식문화 및 공예체험 등을 할 계획이다.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로7017, 명동 등 서울관광명소도 방문한다. 시는 해외 인센티브관광단체의 서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방문 시 인천공항 환영메시지, 특화관광 지원 등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환대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이번 인니그룹 재방문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또 다른 재방문 사례들이

일 수 있도록 한복체험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인니그룹이 방문하는 여행지에 한복체험 부스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한복을 직접 입고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해외 인센티브관광단체의 서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방문 시 인천공항 환영메시지, 특화관광 지원 등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환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기업 단체 관광객의 서울 방문은 작년에 이어 재방문하는 단체이자 그 규모가 작년의 2배에 달하는 만큼 최적의 MICE 개최지를 표방하는 서울시에겐 의미가 매우 크다”며 “향후 서울시가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재방문율이 높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MICE 개최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광복절 태극기 달고 ‘한강 자전거 한바퀴 축제’

서울시, 평화 기원 축제 개최

오는 15일인 광복절에 한강에서 자전거 한바퀴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평화를 기원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나누고, 자전거 안전에 대해 소통하는 축제로 ‘2018 한강 자전거 한바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 한바퀴 운영 코스는 ▲몽팡코스(왕복 40km, 약 4시간 소요, 여의도 → 반포(잠수교) → 이촌 → 난지(반환점) → 이촌 → 여의도) ▲가죽코스(왕복 15km, 약 2시간 소요, 여의도 → 반포 달빛광장(반환점) → 여의도)로 개인의 운동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라이딩 방식은 참가자 100명씩 20개의 조를 이루고, 조별로 배정된 자전거 전문 리더가 동선을 안내하며 함께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더의 안내에 따라 자전거도로 권장속도 20km/h로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안전주행하면 된다.



이 행사는 한강몽팡 여름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한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비경쟁 자전거 대회다. 시는 “행사참가자들이 자전거 내비게이션(모바일앱)을 이용하

여 안전속도 및 자전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속도·기력경쟁을 하는 고속주행이 아닌 제한속도(20km/h)를 지키며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아닌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전속도를 잘 지킨’ 참가자에게 시상한다. ‘에너지 챔피언’은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참가 신청일로부터 행사 당일까지 통근시간대 자전거 이용 총 이동거리(탄소절감량)로 순위를 매긴다. ‘안전 챔피언’은 행사 당일 ‘모바일 앱’을 통해 자전거 도로 주행 및 20km 규정 속도를 준수해 완주한 참가자들 중 점수가 높은 순위로 시상이 진행된다.

현장접수는 행사 당일 오전 9시까지 접수처(여의도 멀티플라자 옆)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티셔츠·태극기·완주증·에너지젤 등 기념품이 포함돼 있다. /오진희 기자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뜨거워 하는 아래 물줄기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일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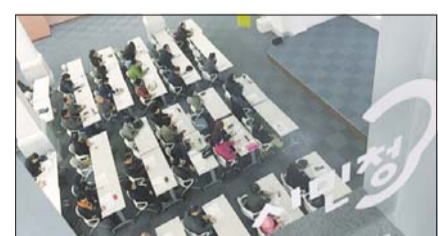
‘통일 두려워 말자’ 주제로 무료 특강

서울시는 오는 9월 5일 오후 4시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강 주제는 ‘분단 73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이다. 강연자로는 통일문제 전문가인 최태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 원장이 나선다.

이번 특강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통일인식 함양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 희망자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청 전경. /서울시

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과 ‘50+커뮤니티’ 원탁토론회

50+커뮤니티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서울시는 오는 29일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50+커뮤니티 원탁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50+커뮤니티의 다양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겪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50+커뮤니티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방향성, 운영 등 공통된 문제의식과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50+세대를 포함해 시민 100명이 참석한다.

원탁토론회 참가 희망자는 28일까지 서울시50+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론 주제별로 1인당 2개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0+커뮤니티의 자립과 성장,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ki1@



시민 참여 토론회 모습. /서울시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50+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ki1@

중구, 민간 어린이집 7~8월 냉방비 전액 지원

서울 중구는 관내 민간어린이집 23곳의 7~8월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여름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시간이 늘어난 어린이집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구는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최고 26만원의 냉방비를 보조해왔다. 올해

에는 어린이집별로 최종 고지된 전기요금과 기존 지원액 간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 고지서에 맞게 전기요금을 먼저 납부하면 구에서 확인해 사후 보전해준다.

구는 가용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냉방비 지원액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